

「朝鮮族略史」에 대한 論評*

全 海 宗

「朝鮮族略史」는 中國의 「朝鮮族略史編纂組」에 의하여 1986년 延吉에서 출판된 本文 370面的 비교적 분량이 많은 책이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時日이 걸렸다. 즉 일찍 1956년에 中共의 中央黨과 毛澤東의 指示에 따라 全國人民代表大會 民族委員會와 國務院 民族事務委員會의 직접 指導로 少數民族社會略史에 관한 調查事業을 시작하고 그 2년 후에 中國科學院 民族研究所를 중심으로 各省, 各自治區의 조사가 계속되어 1959년에는 대부분의 草稿가 끝났다. 이에 앞서서 1958년에 吉林省 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組가 조직되고, 中央民族研究所, 中央民族學院, 北京大學, 中央音樂學院, 吉林大學, 東北師範大學, 延邊大學 등에서 60여 명이 調查組의 사업에 참가하고 「朝鮮族略史」의 초고를 집필하였다. 그후 여러차례의 보충조사와 修正 討論을 거쳐 1963년에 일단 기초적인 초고가 끝났다. 그 후에도 여러번 修正이 加하여졌다고 하나 1986년에 이르러 겨우 出版된데 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地域的으로는 東北地方(즉 만주) 전역에 걸쳐 있고 延邊(즉 間島) 지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年代的으로 清代의 東北地方에 대한 淸의 政策에 간단히 言及하였으나, 주로 19세기 후반의 韓國人의 移民의 초기로부터 下限은 2次大戰 직후까지로 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의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맑스 레닌主義의 基盤 위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出版物로서 당연한 일이지는 하나 앞에서 말한 이 책의 成立過程을 보면

* 이 研究는 1988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그 共産國家의 官製的 출판물이라는 점이 明白하다. 이 책은 7章으로 나뉘었는데 그 章別의 題目이 1. 조선족인민들의 동북변강개척과 초기의 반봉건 투쟁, 2. 연변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족인민들의 투쟁, 3. 조선족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일으킨 반제·반봉건투쟁의 새로운 고조, 4. 동북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 조선족인민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 5. 전국적 항전에 배합하여 항일전쟁의 중국적승리를 전취한 조선족인민들, 6. 여러 민족인민들과 함께 전중국의 해방을 위하여 분투한 조선족인민들, 7. 조선족의 문화 등으로서 끝의 제 7장을 제외하면 모두 반제·반봉건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제 7장에 관하여는 뒤에서 언급하겠으나, 여기서는 「조선족인민들」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족」이라고만 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제 7장을 빼면 이 책의 제목은 「朝鮮族反帝反封建闘爭史」라고 하는 것이 더욱 適切할 것 같다.

章別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제 1장에서는 동북지방에 대한 淸王朝의 封禁 정책과 그 경과, 그리고 韓人들의 移住와 水田의 개발에 관하여 서술하고, 그들의 淸朝와 封建地主에 대한 투쟁, 특히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러·일전쟁 이후의 日帝의 진출에 대하여 특히 연변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투쟁하였는가를 다루었는데 연변 특히 龍井에서의 3·1운동에 언급하고 日本의 토벌군에 대한 투쟁으로 靑山里 싸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그런데 日本人 指揮官들의 이름은 거론하면서 독립투쟁을 한 한국인은 洪範圖를 들었을 뿐이다. 이 장의 끝에서 조선족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1920년대의 日本 및 東北軍閥의 압박과 착취, 그리고 이에 대한 항쟁을 논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른바 자산계급의 민족주의 운동은 쇠락하였다고 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로 반제·반봉건 투쟁이 고조되었다고 하며, 1930년의 5.30 폭동과 8.1 吉敦 봉기에 관하여 특별하고 있다. 제 4章에서는 1931년의 사건의 발발로 동북지방이 日帝의 식민

지로 전략하였음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王德林 등의 抗日 유격대가 창건되었음을 말하고 그들의 유격활동의 예를 들고 있다.

제 5 장에서는 1937년 7월 7일의 盧溝橋事件 이후 이른바 全面戰 抗戰으로 돌입하고 조선족이 큰 寄與를 하였음을 논하고 있다. 제 6 장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북에서 이른바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國民黨의 통치에 반대하며, 조선족의 土地改革 운동과 해방전쟁의 원호에 대하여 기술하여 1949년에 이르고 있다. 제 7 장에 관하여 뒤에서 언급하겠다.

中共에 있어서의 歷史叙述도 특히 四人幫의 沒落 후에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두었다고 斷定할 수 없는 風氣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朝鮮族略史에서는 그 「머리말」에서 四人幫의 沒落을 言及하기는 하였으나,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는 없다.

이 책의 내용의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中國人으로서의 朝鮮族」을 自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편 당연한 것 같기도 하나 과연 그러할까. 이 책의 머리말에서 「조선족인민들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 인민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있었으며」, 또 「조선족인민들은 중국공산당 영도밑에」라고 하였으며, 그러한 표현은 도처에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中國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寄異한 感이 없지 않다.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少數民族이 그 多數民族과 완전히 융합할 수가 있을 것인가.

朝鮮族의 共產主義 운동을 中國共產黨의 領導下라고 表現하고 있는데 韓國內의 共產主義 운동이나 소련 특히 沿海州 지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言及이 없다. 다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우리나라(中國) 동북의 여러 민족 인민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하고……」라고 하여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다.

한편 淸朝에 대하여는 봉건적 왕조로서 철저히 반대하고, 동북 군벌에 대하여 「일본제국주의와의 結탁」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成立 以前の 中國에 대하여 韓國에 대하여 보다 親近感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 민

어진다. 예를 들면 白頭山의 國境問題에 대하여 穆克登에 관한 叙述을 하면서, 舊韓末의 西邊界管理使나 閔島管理使에 관한 言及은 없다. 東北地方 특히 延邊과 韓國의 政治的 또는 領土的 관계에 對하는 言及을 回避한 느낌이 있다. 또 3·1 운동을 「반일운동」이라고 한때 대하여 中國의 5·4 운동에 대하여 「반일애국운동」이라고 하고, 그 영향을 논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이 책의 경향에서 보면 韓國人の 民族主義運動은 극히 部分的으로 그것도 대체로 주로 共產主義運動과 關連하여 言及하고 있다. 李東輝의 경우가 그와 같은 例다. 東北 즉 滿洲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운동은 初期에 있어서는 中國內地를 포함하여 國內外에 있어서의 運動의 中樞的 役割을 하였던 것이며 그 比重은 共產主義 運動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음에 不拘하고 이 책에서는 너무 疏忽히 하고 있다. 이 책의 제7장에서 朝鮮族의 문화라는 題目 안에서 이 점에 若干 言及하고 있는 것은 未洽하나마 多幸한 일이다. 전혀 無視할 수 없기 때문에 「文化」라는 名目下에 다루고 있으나 너무 疏略하다. 예를 들면 「墾民教育會」에 대하여는 간단히 言及하였으나, 鐵光團이나 延邊自治促進會 등의 活動에 대하여 言及이 없다. 延邊自治州가 뒤늦게 1952년에서 1956년에 걸쳐서 成立되었으나, 自治運動의 先驅는 그 30년 전에 民族主義 運動者들에 의하여 推進되었던 것이 겨우 結實을 보게 된 것인데 이에 對한 言及이 없다. 民族主義 運動을 소홀히 보고 있다는 것은 現在 延邊의 龍井에 있는 3·1運動 당시의 犧牲者들의 墓地가 荒廢되고 있다는 점에서 理解가 가는 일이다.

反帝·反封建 運動에 중점을 두고 한편 漢族과의 友好를 強調한 結果로 韓國人과 中國人과의 摩擦에 대하여는 度外視하고 있다. 韓國人 小作人과 中國人 地主와의 差는 茶飯事같이 발생하였는데 反封建이라는 觀點에서도 中國人 地主라고 明記하지는 않았다. 小作人과 地主와의 關係 뿐만 아니라 一般 韓國人·民族運動者와 中國人 특히 中國 官憲과의 葛藤에 대하여도 言及이 있어야만 民族主義者들의 苦楚가 浮刻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는 留意하지 않고 있다.

民族主義 運動과 관련된 文化活動에 관한 叙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文化」라는 제목으로 教育·文學藝術·宗教·風習 등 여러 分野에 대하여 散漫하게 羅列적으로 叙述하여 焦點이 없다. 文學藝術에 있어서 反帝·反封建을 내세우려 하고 教育·宗教 등에서 不得已 民族主義 運動에 言及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叙述이 모호하여질 수 밖에 없고, 또 이 제 7장이 그 앞의 6장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 책의 체제상 제 7장은 부록으로 첨가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은 民族主義 運動 및 韓國과의 關係에서 본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그밖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資料蒐集과 그 整理 등에 관한 문제다. 基本史料를 調査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充分하다고 할 수 없다. 日帝의 總督府나 現地 官邊側의 機密文書, 現地에서 특히 韓人들이 出利한 書籍과 新聞·雜誌 그리고 個人的 記錄 등이 그것이다. 中國側의 記錄의 利用이 특히 많지 않다. 많은 人員을 동원하여 近 30년에 걸친 作業의 결과로서는 未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지적할 점은 많은 具體的 事實을 學論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典據를 밝히지 않은 것이 많다. 面談·回顧 등에 근거한 叙述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明示함으로써 信憑性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凡例와 특히 索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事件名과 人名이 많은데 이에 대한 索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순 한글로 되어 있는데, 中國語版이 따로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地名이나 人名(특히 中國人名)에 대하여는 漢字의 對照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명백한 誤謬도 있다. 예를 들면 「동조변장(東條邊牆)」(p. 2)는 柳條 變장의 잘못으로 漢字와 한글이 다 같이 틀렸으며 단순한 誤植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漢字는 없이 皇太極은 「황태극」이라고 하면서, 穆克登은 「무커덩」이라고 하여 體裁의 통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히려 技業적인 것이며, 중요한 점은 이 책의 내용이 「反帝反封建鬪爭史」에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